

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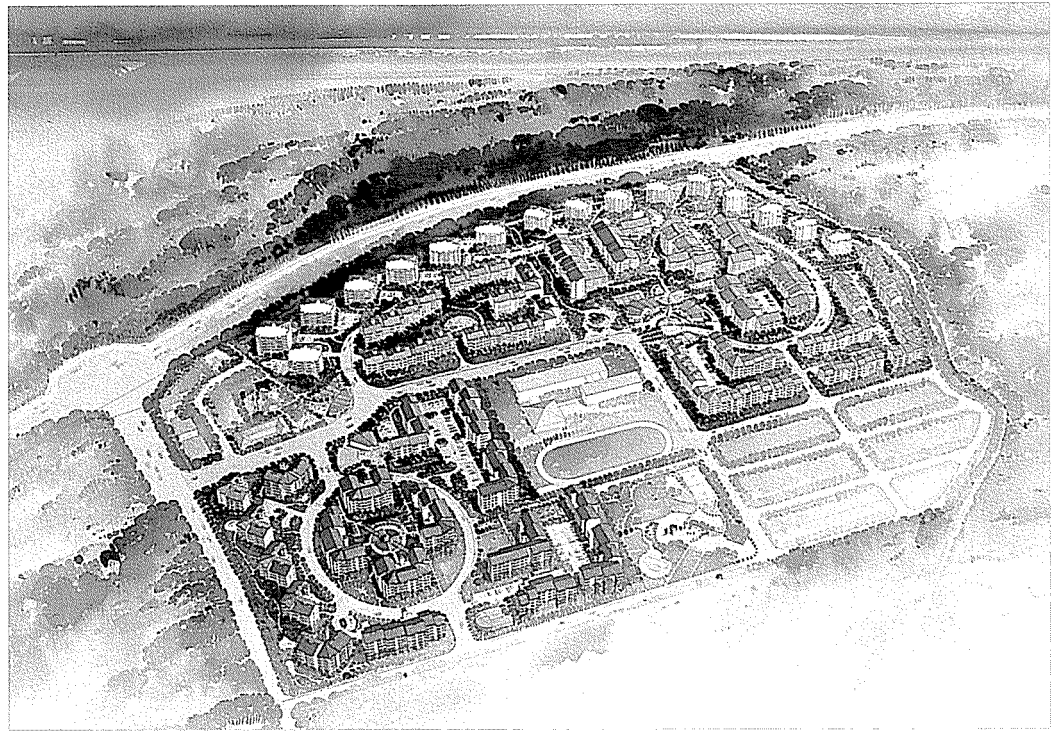
무영건축(안길원+손광민)

1단지
 대지면적 / 30,264.00㎡
 건축면적 / 6,318.12㎡
 연면적 / 51,387.16㎡
 건폐율 /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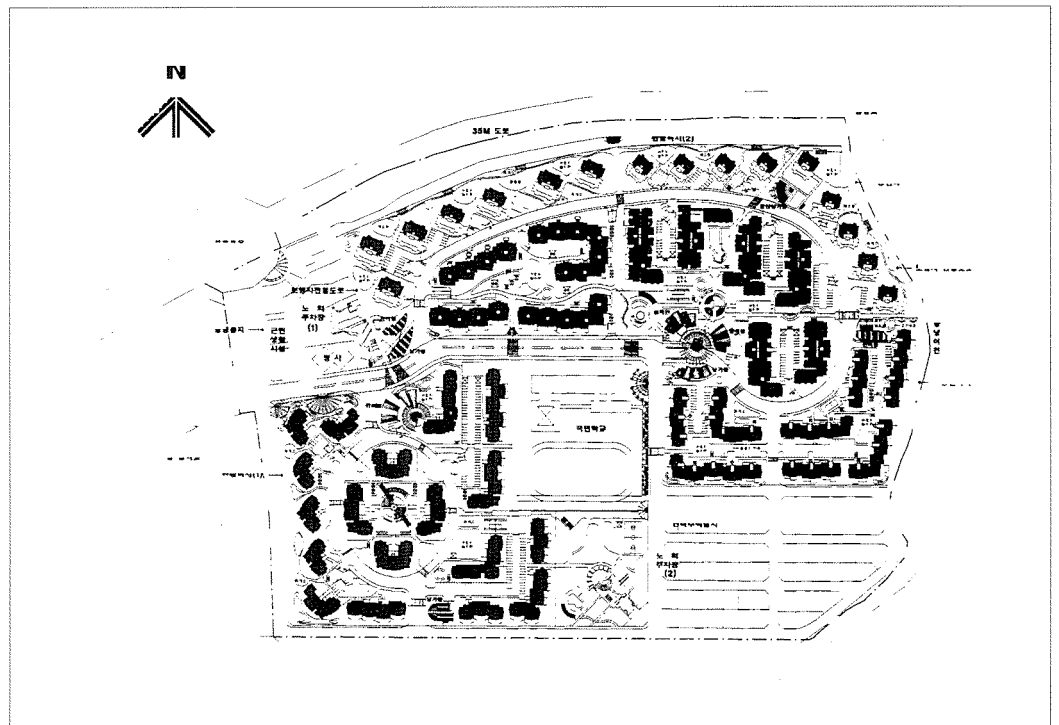
2단지
 대지면적 / 58,586.00㎡
 건축면적 / 13,631.22㎡
 연면적 / 98,611.38㎡
 건폐율 / 23.2%

3단지
 대지면적 / 43,056.00㎡
 건축면적 / 8,926.75㎡
 연면적 / 62,996.75㎡
 건폐율 / 20.7%

계획담당 / 주창혁, 최대성, 조영선, 김영훈,
 김영우, 김경순, 이미애, 박은경,
 주경호, 최정봉, 차병철, 임창수



조감도



종합계획도

근간에 들어 단지·건축설계의 지역성 그리고 주변환경요소와 조화되는 단지·건축설계 방법론에 대한 탐색이 건축계 전반의 주관심사로 항상 대두되어 왔었다. 특히, 지역성의 반영에 대한 실제적인 설계적 용요소에 대한 문제는 건축설계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어려운 현실로서 여겨지곤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엔 제시된 제주화북 현상설계 공모안은 참신한 설계적용 요소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참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다 지형적 조건과 주변여건이 상호조화되는 개발개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경관요소, 풍속, 문화적인 특성 등을 반영한 주거단지를 계획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제주의 기존 거주민과 정착민의 전통적인 마을 개념과 동네 의식을 불력별 Community계획으로 구체화하였고, 주변의 자연요소와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동선 및 Open Space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하였다. 특히, 제주의 천혜 자연자원인 한라산과 해변가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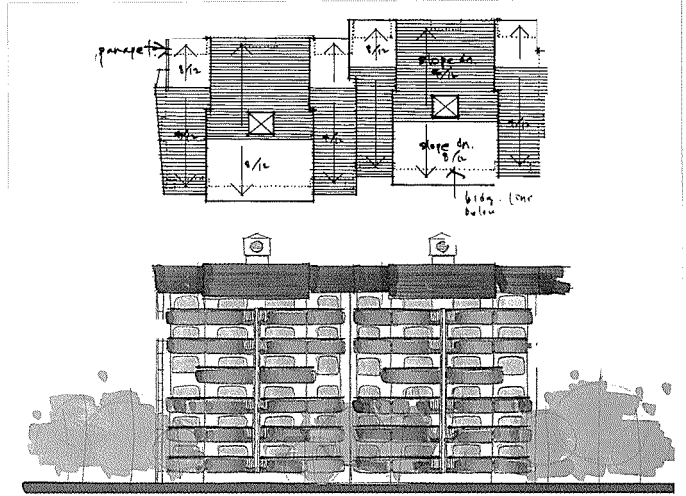
순환도로에서의 경관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순환도로변에 Tower형을 분산배치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조망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동선계획은 보도와 차도의 분리를 기본 목표로 단지 중심부에 구심성이 강한 중앙광장과 마을 중심시설을 배치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불력별 Open Space체계를 마련하여 불력별 보행전용도로축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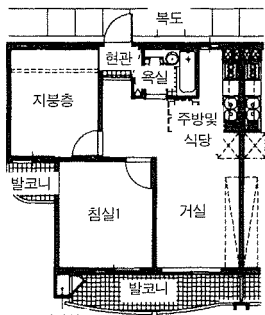
주동계획은 각 동별 Identity 부각을 위한 동네개념을 도입하여 주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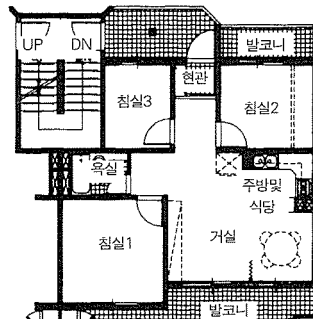
CAD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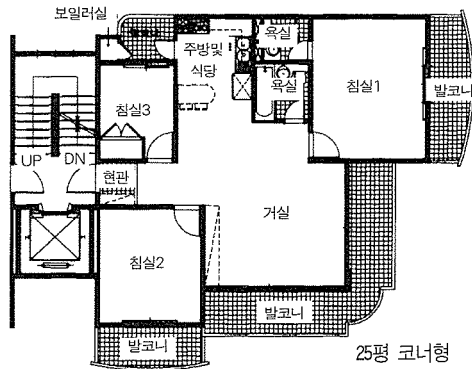
스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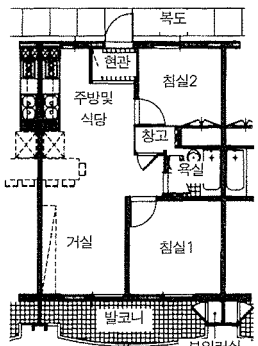
15평 중복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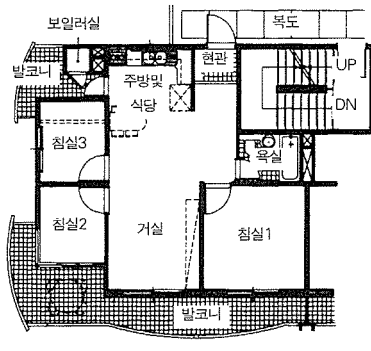
18평 일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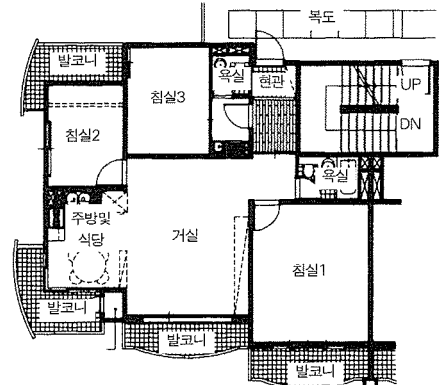
25평 코너형



15평 일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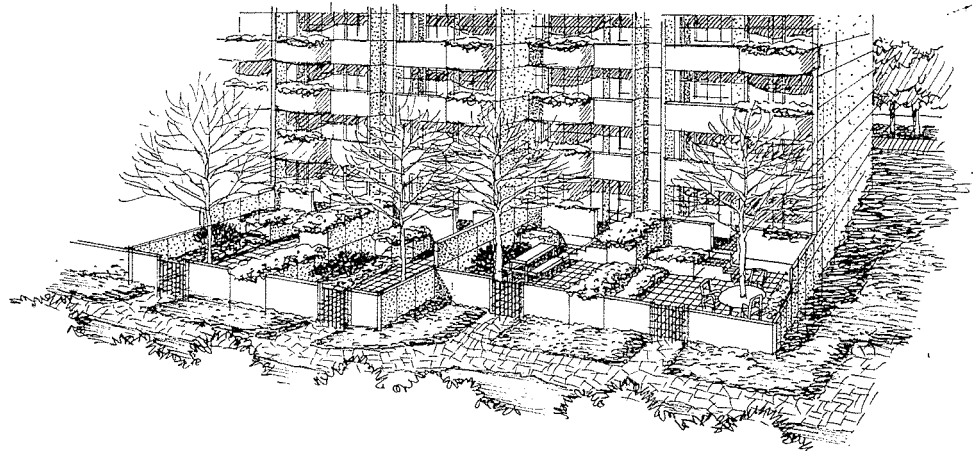


18평 타워형



25평 타워형

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부지조건에
순응하는 각 주거동의 남향배치로
합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하고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편리성 및
독립성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입면
계획을 주동형태의 다양화와 발코니
의 라운드화로 리드미컬한 입면을
추구하였고, 각 층별·세대별 발코니
의 형태변화로 곡선미를 살려 부
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부분 투시도